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4년 4월

선교편지 제 174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월 셋째 주일, 디고스 예일교회의 '창립 9주년 기념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지금까지 교회가 지나 온 날들을 돌아보며, 순간마다 기적같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예수를 믿어 가정이 회복되고,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절망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새 소망을 찾고, 큰 슬픔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난 승리의 소식들이 쌓여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각 부서마다 다양하게 창립 9주년을 감사하고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한 순서는, 단연 '뽀도이' 형제의 간증이었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디고스 예일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 한 가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덜컥 아이를 낳고, 생활 기반이 없이 어려운 삶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디고스 예일교회에 첫 발을 들여 놓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갈급 했는지,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에 빠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장 먼저 와서 예배 준비를 해 놓고, 토요일 마다 교회 청소와 자리를 정돈해 놓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몸이 불편한 교인을 예배 시간에 맞추어 모시고 오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이미 오래 되었지만 부인 '아일린'은 장학사역을 통하여 인근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남편도 단순한 일이지만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부인은 대학교를 졸업하여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뽀도이 형제는 그동안 저축하여 모은 돈으로 트라이시클을 장만하여 어엿한 자영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에는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집도 장만했습니다.

이렇듯 디고스 예일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한 가정이 완전히 변한 일들을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할 때, '뽀도이' 형제를 통하여 9년간의 디고스 예일교회의 역사를 한 눈에 보는 듯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변화가 아닌, 디고스 예일교회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소망 가운데 디고스 예일교회의 10주년을 바라보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 주신 선교의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기쁨과 감격으로 써내려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살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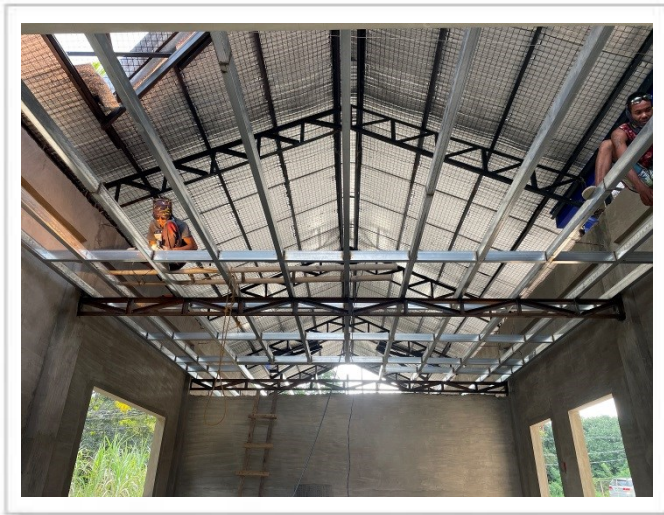


☀️ 연일 계속되는 100 °F (40 °C)가 넘는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띠 은혜 교회'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택을 제외한 모든 골조 공사를 마치고, 각각 분야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신경이 많이 쓰여졌던 '지붕 공사'를 아무런 잡음 없이 무사히(?) 마쳤고, 바닥 타일 과 페인트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예상하지 못한 '창문' 제작 공급 업체가 문제를 일으켜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미 가격을 결정하고, 샘플도 확인하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23개의 창문 납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제작 업체 주인이 잠적 해 버린 것입니다. 수소문을 해 보니, '이윤'이 적어서 못하겠다고 사라진 것입니다. 어렵게 대금을 돌려 받기는 했으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하루 하루가 마치 살얼음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는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 최우선이 되지 오래 입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 가운데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평온한 것같이 보이는 얼굴과 달리 가슴은 초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이 역사가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순간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띠 은혜교회 건축이 중반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띠 은혜교회'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 한 마리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전과 아들이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과 아버지의 심정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과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눅 15:6)**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마띠 은혜교회 건축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5.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

